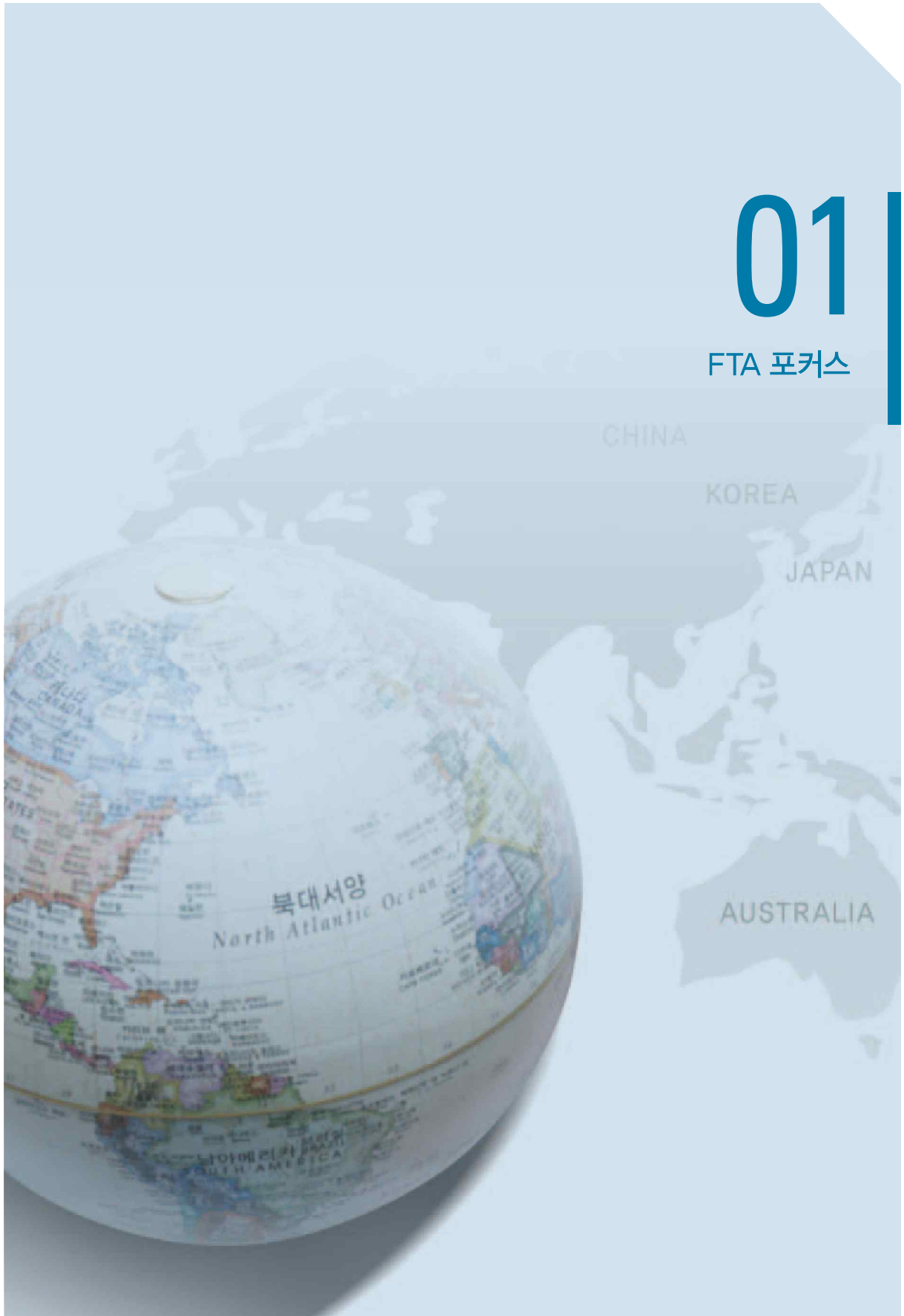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I. 2013년도 관세청 FTA 정책운영 방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박병진

1) 머리말

2013년 5월말 기준 WTO에 보고되어 발효중에 있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은 370건¹⁾이나 되는 등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은 국가간·지역간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조류에 발맞추어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와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중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달한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부분이 FTA 특혜교역에 포함되는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1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1조불을 달성하였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룬데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있겠지만 FTA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對세계 수출이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아세안과 미국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8.1%와 5.8%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 FTA는 발효 1년 4개월('13년 5월말 기준)만에 수출활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관세청의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1:1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정책이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 기업이 FTA 특혜를 향유하는데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은 미흡하여 FTA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원산지 사후검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일부 FTA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1) WTO 자료

"상대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하여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 설치운영"

또한, 수입측면에서는 FTA 무역을 가장한 불법부정 무역거래로 인한 국내 취약 산업에 피해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원산지 제도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FTA 이행 등도 FTA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2013년도 FTA 집행행정 추진방향

이에 관세청은 2013년에는 발효 중에 있는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역량 제고에 집중함과 동시에, 철저하고 효율적인 FTA 이행체제를 확립함으로써 FTA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FTA 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첫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원스톱 지원 실시' 둘째, 'FTA 악용 차단을 통한 공정무역 질서 확립' 셋째, 'FTA 국제협력 강화'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원스톱 지원 실시(Small Giants 500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지원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Small Giants 500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FTA 활용이 미흡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FTA 원스톱지원센터'의 FTA 기업상담관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취약분야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FTA 활용 Total 컨설팅 지원

먼저, 원산지관리 자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FTA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활용, 인증 지원 뿐 아니라 검증을 대비하여 사전 진단서비스 등을 포함한 'FTA 활용 Total 컨설팅'을 지원한다.

FTA 전문인력 양성 추진

또한,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중소기업에서 FTA를 담당할 실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등에 FTA 실무강좌 또는 전공학과를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FTA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실제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이 기업 현장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Job Matching Day'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 설치·운영

급증하고 있는 상대국의 사후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비하여 검증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실제 검증사례를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중소기업, 검증 고위험 산업군 등에 대해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협정내용, 무역계약시 유의사항,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로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01. FTA 포커스

또한, 전국 및 각 지역단위별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검증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검증 대응 현황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적극 개발·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검증대비 지원에 힘쓰고 있다.

FTA 활용애로 해외현장 해결팀 운영 및 FTA-Hub 구축

해외 통관애로로 인해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적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FTA 활용애로 해외현장 해결팀'을 운영하여 차별화되고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간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FTA-Hub"라는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FTA-PASS와 기업 ERP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계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구조적인 FTA 활용비용 절감을 통한 FTA 활용확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나. FTA 악용차단을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검증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및 3국간 무역거래에 대한 입체적 모니터링 실시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FTA 체결국간 무역창출 등 후생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3국에

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세탁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FTA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표준질의서'를 마련하여 검증에 활용하고, 원산지 위험지표를 활용한 '층화추출법'²⁾ 방식과 '단순 무작위' 방식을 병행하여 검증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검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농수산물의 불법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하여 필수 원산지 검증 대상품목(203개 품목)을 농수산물 소품목으로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농수산물 해외공급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원산지 고위험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체약국-비당사국 등 3국간 무역거래 총량에 대한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원산지 세탁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등 환적 화물의 불법 우회수출입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다.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

FTA 체결국간 협력체계 강화 및 상대국 관세당국과 MOU체결 추진

관세청은 FTA 이행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등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제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원산지 실무협력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FTA 체결국간의 이행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원산지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²⁾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은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몇 개의 집단(층)으로 구분하여 미리 할당된 수에 따라 각 층에서 표본 추출하는 것임.

또한 원산지 검증절차의 조화를 통한 기업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원산지 검증' MOU 체결을 추진하고, 신규 협상에서는 기업경영의 여추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검증 결과의 단기간 회신'이 합리적으로 합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아울러,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검증사례, 민원질의 회신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준수해야 할 협정상 의무이행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관당국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맺음말

2013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각국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선점의 노력이 지속될 것

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1일 터키와 FTA가 발효 되었고, 한·중,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아세안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는 자유화 확대를 목표로 양자간 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FTA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발효된 FTA의 활용을 촉진하고, 협상중에 있는 FTA의 성공적인 타결과 이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세청은 FTA 협상 및 이행체제를 개선하고 내실화함으로써 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원산지 검증 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 FTA 무역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나갈 것이다.

「FTA 원스톱 지원센터」³⁾

| 본부세관별 「FTA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자 |

세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 스	E-mail
서울본부세관	김호경	02-510-1570	02-2015-7871	fta-seoul@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	홍성우	032-452-3172	032-891-9186	fta020@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이석동	051-620-6637	051-620-1140	fta030@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김영호	053-230-5252	053-230-5626	fta120@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	김수미	062-975-8053	062-975-8049	fta071@customs.go.kr
평택직할세관	최종남	031-8054-7043	031-8054-7046	fta016@customs.go.kr

3)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 애로사항 상담에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까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